

러 “한국, 살상무기 우크라 공급시 모든 방법으로 대응”

러 외무차관 “韓, 안보 냉정히 평가 ‘무모한 조치’ 자제해야”

젤렌스키 “내년에 전쟁 끝날 수도…트럼프 종전안 듣고 싶어”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
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히 대응하겠다
”고 경고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루덴코(사진) 러시
아 외무차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
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이 깨달아야 한다”



그는 “우리는 물론 필요한 모
든 방법으로 이에 대응할 것
이고 이것이 한국 자체의 안
보를 강화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
이 상황을 냉정하
게 평가하고 이
같은 ‘무모한
조치’를 자
제 하라고

압박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단기적이고 기회
주의적인 외부의 유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을 우선으로
고려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
회견에서 지금까지는 인도주의·경제적
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지만 북한
군 파병이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현대전 경
험을 쌓게 되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 문
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은 인
도주의 관점의 지원에서 이제는 북한군
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지원
방식을 바꿔 나간다”며 “무기 지원이라

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덴코 차관은 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북
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정당화하려
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
TO·나토)가 대만에 무기를 공급하면
서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동
맹국들은 대만 해협에서 의도적으로 긴
장을 고조하고 있다”며 “이는 우크라이
나를 러시아에 대항하도록 한 전략과
유사하며 러시아와 역사적으로 긴밀하
고 우호적인 관계를 파괴하려는 시도”

라고 주장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
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전쟁을 내년에는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3일(현지시간) 현지매체에 파
르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식
량안보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이것은 어
려운 길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이를 달
성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자신한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전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
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제안을 기다
리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 아시
아·아랍 국가 지도자들의 제안에 열려
있다. 또한 미국 차기 대통령의 제안을

듣고 싶다”며 “우리는 그것을 1월까지
는 보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 종전을
위한 계획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
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 자
신이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
나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20일 취임
해 2번째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일각에선 그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
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유예
하고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방식으로
종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
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적은 없
다. /연합뉴스

韓, 별도 사도광산 추도식…“80여년 전 강제동원 노동자 애도”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노동자추모

日정부, 韓 ‘추도식 불참’에 “유감”

일본 주최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
한 한국 정부가 25일 일제강점기 사도
광산에서 강제 노역한 조선인 노동자
를 추모하는 별도 추도 행사를 열었다.

한국 정부는 이날 오전 일본 니가타
현 사도섬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
사였던 ‘제4상예료’ 터에서 추도 행사
를 개최했다.

추도식에는 한국 유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를 비롯한 주일 한국대
사관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추도사 낭독과
묵념, 헌화 등이 진행됐다.

박 대사는 추도사에서 “80여년 전 사
도광산에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
에 지쳐 쓰러져 간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령에 머리 숙여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사도광산의 역사 뒤에는 한국
인 노동자들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을
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라며
“추도식이 가혹한 환경에서 고통을 겪
은 한국인 노동자를 기억하고 희생자
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애초 한국 유족과 정부 대표들은 전날
일본 주최로 사도섬 아이카와개발중
합센터에서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



25일 오전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조선인 기숙사 터에서 열린 추도식을 마친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유족들이 경도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행사 전
날인 23일 전격 불참을 일본에 통보했
다.

추도식 일본 중앙정부 대표인 이쿠
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문제와 추도
사 내용 등이 조선인 노동자 애도라는
행사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판단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이 지난 7월 사도광산
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한국
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매년 현지

서 열기로 약속한 첫 노동자 추도식은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이쿠이나 정무관은 전날 추도식에서
조선인 노동자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강제동원’ 등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1603-1867)에
금광으로 유명했던 곳으로 태평양전쟁
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등 전쟁 물자
를 확보하는 광산으로 주로 이용됐다.
이 무렵 1천500여명으로 추산되는 조선
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환경 속에

서 일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25일 ‘사도광산 추
도식’이 한국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
사’로 치러진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
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
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
서 사도광산 추도식에 한국이 불참한
데 대해 “한국 측이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입장은 아니지만,
한국 측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명상 수행용?…태국 수도원서 시신 41구 발견

수도원장 “기증받은 시신 사용, 명상 기법” 주장…경찰, 확인 중

태국 북부 불교 수도원에서 시신 40
여구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외신에 따르면 경찰은 북부 파주
파 나콘 차이보른 수도원에서 지난 23일
시신 41구가 발견돼 출처 등을 수사 중이
라고 전날 밝혔다. 경찰은 사망진단서와
시신기록서가 있지만 시신이 실제로 기
증된 것인지, 자연사했는지 등을 확인하
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원 측은 시신을
명상 수행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수도원장은 현지 매체에 “시신 사용
은 내가 개발한 ‘명상 기법’의 일부”라

며 “수도자들이 시신이 든 관이 있는
공간에서 명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많
은 승려가 이 기법을 배우기 위해 수도
원을 찾지만 얼마나 많은 곳에서 적용
하고 있는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근 캄펑펏주 한 수도원에서
도 지난 20일 시신 12구가 발견됐다. 대
부분 사망진단서는 없었지만 시신기록
서는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도원
장은 역시 시신은 명상 수행을 위해 유
족들이 자발적으로 기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마닐라 빈민촌서 화재…가옥 1천채 불타

필리핀 수도 마닐라 빈민촌에서 가
옥 약 1천채가 불타는 대형 화재가 발
생했다.

〈사진〉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24일 마
닐라 빈민가인 톤도 지역에서 불이 났
다.

소방 당국은 오전 8시께 한 가옥 2층
에서 시작된 불로 약 1천채가 불에 탔
다고 밝혔다. 화재 발생 구역에는 약 2
천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해변 지역 가옥들
에 불이 붙어 붉은 화염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나
무 등으로 만든 수상 가옥들이 불에 타



마음이 초도화됐다.

당국은 소방차 30대와 소방정 4척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펼쳤고, 공공도 소
방용 헬리콥터 2대를 파견했다.

소방 관계자는 “이 지역 집들이 대부
분 가벼운 재료로 만들어져 화재에 취
약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